

# 시 정 질 문 서

## 【윤병국 의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사업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함

우리 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진행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견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먼저, **지역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흥에버에서부터 현대백화점 건너편까지의 계남대로변을 시범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기존 간판을 모두 뜯어내고 새로운 간판을 부착하게 되는데 이것은 멀쩡한 간판을 새로 만들게 되므로 자원낭비가 생깁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상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법규에 맞는 간판을 달도록 철저히 지도했다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낭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워브더스테이트 같은 대형 신축상가에서부터 법규에 맞는 간판달기를 지도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규격을 맞추는 등의 시도를 한다면 자원낭비 없이도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일을 우선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역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면 **시범지역이라서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시범지역에 대해

(1)건물 4층 이상의 벽면에 가로로 된 간판을 불허 (2)영업장 길이에 관계없이 가로, 세로 길이를 정해진 규격만 허용 (3)지정 간판 2개 외 창문 선팅 불허 등을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간판은 이미 관행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범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4층 이상의 가로간판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시범사업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설명회에도 논란의 당사자인 4층 이상 사업주들에게는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계획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사업주, 시공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에 대해 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